

한국민족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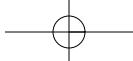
- 2 | 명사 축사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 3 | 한글 상식 자세히 들여다보는 한글, 한글날
 - 4 | 한글날 기획 기사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 5 | 전문가의 말 현장 속의 한국어 전문가
 - 6 | 한글로 전하는 사랑 한국어의 연인들
 - 8 | 우리말 편지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우리말 편지
 - 10 |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 12 | 자주 혼동되는 한글 맞춤법 이야기

멋글씨 | **오민준** ‘멋글씨’는 ‘캘리그라피(calligraphy)’의 다듬은 말입니다



국립국어원

명사 축사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567돌 한글날을 축하하는 편지가 각계각층으로부터 도착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 것을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민현식 국립국어원장님께서 한글날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융성을 위해 힘쓰시는 신학용 의원님과 김희정 의원님, 온 국민이 사랑하는 배우 고두심 님과 이선균 님도 축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또 국어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문 학술 단체를 대표하는 박창원 교수님과 한국인보다 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다니엘 튜더 님도 축사를 보내셨습니다.

국어가 바로 서고, 문화가 융성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입니다.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맞이하게 된 한글날
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의 의의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문화유
산인 한글이 비로소 그 가치를 온당하게 평가
받게 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날로 쓰
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는 《훈민정음》의 문구에서
보듯, 온 백성이 언어생활에 불편함이 없기를 바랐던 세종
의 응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선
진국의 길에 들어섰고 전
세계에 일고 있는 한류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 걸쳐 45만여 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렀으며, 약 10만 명에 이르는 유학
생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땅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은 제대로 대접
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고 불필요한 외국어
가 남용되고, 탈문법적인 언어 표현이 많이 쓰여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가 꿈꾸는, 문화가
융성하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의 근간인 언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
니다. 소통과 화합의 언어, 품격과 배려를 갖춘 언어가 사
회 전반으로 퍼져 나가야 문화가 흥하고 국격이 높아집니
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의 국어 문화가 한층 고
양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국어가 바로 서고, 문화가 융성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길에서 다시 빛길 바라며,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용
국회의원,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공휴일로 다시 맞는 567돌 한글날
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회에서는 교문위 차원에서 작
년에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결실을 맺어 이렇게 회창한
가을날 국민 여러분이 한글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어 참
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글 창제의 원동력은 세종대왕
의 애민 정신입니다. 우리 국회도 오직 국민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문화 선진국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국회의원,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567돌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쉽고
과학적인 글, 한글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높은 교육 수준과
문화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한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뜻깊은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한 것은 바람직하고, 당
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과 소통,
문화융성의 길을 열어 가는 데 우리말과 우리글이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한글이 세계 속에 우
뚝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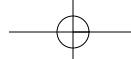
고두심
배우

567돌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최근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어도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외국에서
제가 출연한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 뿌듯
함도 느낍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
금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말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세종대왕께 부쩍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만큼 여러분들도 한글의 의미를 되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박창원
한국어문화학술단체연합회 공동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글날이 공휴일이 됨으로써 명실
상부한 국경일로 자리매김한 것을 축하합니다. '훈민정음'
의 창제로 비로소 우리 민족은 고유의 문자를 가지게 되었
고, 인류 문화사상 그 유례가 없는 과학적인 문자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받아 《훈민정
음》은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습
니다. 이러한 뜻깊은 날을 맞아 민족 문화의 창달이 우리
문자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한글아놀자

문화융성, 한글 사랑이 첫걸음입니다

국립국어원장 민현식

올해 '한글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1991년 국경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05년에 국경일로 재승격된 후 공휴일로 다시 맞게 되어 그렇습니다. 공휴 국경일로서의 한글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삼일절은 항일 독립을,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광복절은 해방과 건국을, 개천절은 민족의 개국을 기려 모두 국가와 민족에 관련된 의미를 지닙니다. 이와 달리 한글날은 인류 지혜의 산물이자 세계적 학자들이 우수한 문자로 인정하는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는 문화 국경일입니다. 우리는 한글 덕분에 해방 후 80% 수준의 문맹 상태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날 10대 무역 대국에 드는 선진 한국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융성을 통해 선진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도 21세기의 국제 통용어로 발전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6천만 정도의 인구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선진화했듯이 이제는 5천만 대한민국이 한국어와 한글을 국제 언어, 국제 문자로 만들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한 뜻을 《훈민정음》의 서문에 담았습니다.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자주정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애민 정신,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만든 실용 정신이 반영된 《훈민정음》의 서문은 한민족의 문화 독립 선



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펼쳐집니다. 문화융성의 기반은 선진 국어 문화입니다. 세계 10대 무역 국가이자 2만 달러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갖춘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정신문화를 창달하는 기초가 바로 한국어이고 한글입니다. 바르고 품위 있는 국어 교양과 국어 문화가 더욱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언어의 가치는 국력과 비례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어가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정작 국내에서는 안타깝게도 곳곳에서 우리말과 한글이 파괴되고 해체되어 가는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다양한 사업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 전환입니다. 우리 말과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경청하며 합리적으로 토론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언어생활을 누리도록 각자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한글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받들어 자주독립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서로 섬기고 소통하는 자세로 나아가며 우리나라의 실용적인 산업과 학문 발전을 당당히 우리말과 한글로 이룩하고 세계화



다니엘 튜더
언론인

한국에서의 첫날은 고독과 혼돈으로 기득했습니다. 원과 선으로 조합된 길 위의 표지판이 나를 더욱 외롭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었습니다. 이 낯선 문자를 배워야만 하는 저로서는 부담이 커지만 하루 만에 글자의 원리를 알 수 있었고 심지어 음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화려하지 않지만 뛰어납니다. 몇 개의 획으로 매우 넓은 범위의 소리를 우아하고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은 천재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열어 준 한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이 다시 제 대접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인의 가장 위대한 발명을 축하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글날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배우

567돌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연기를 하다가 멋진 대사를 접할 때면, 우리말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제대로 살려 적을 수 있는 한글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한글은 우리말을 지켜 주는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가 활짝 꽂힐 수 있게 해 준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큼은 한글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말 사랑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글 상식 자세히 들여다보는 한글, 한글날

자세히 들여다보는 한글, 한글날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글이 매우 독창적이고 뛰어난 문자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글날은 왜 10월 9일일까요?

한글의 과학성

자음자는 발음 기관 상형, 모음자는 천지인 상형

한글은 세계 문자사의 기적이다. 한글은 누가, 언제, 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는 문자이다.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1443년에 창제된 한글은 1446년에 지어진 《훈민정음》 해례본 解例本이란 책자에서 세종대왕이 자주, 애민, 실용의 창제 동기를 가지고 과학적 방법으로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자음자는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기본자 'ㄱ, ㄴ, ㅁ, ㅅ, ㅇ'을 만들고 가획 'ㄱ-ㅋ, ㄴ-ㄷ-ㅌ, ㅁ-ㅂ-ㅍ, ㅅ-ㅈ-ㅊ, ㅇ-ㅎ'과 병서 'ㅍ, ㅌ, ㅊ, ㅋ, ㅌ'의 원리로 확장하였다. 모음자는 천지인 天地

을 상형한 기본자 'ㅏ, ㅓ, ㅗ, ㅓ, ㅜ, ㅓ'를 만들고 이를 다시 합용하여 초출자 初出字 'ㅗ, ㅏ, ㅓ, ㅜ, ㅓ'와 재출자 再出字 'ㅕ, ㅑ, ㅕ, ㅕ, ㅕ' 등으로 확장하였다. 상형을 기본으로 하고, 가획과 합용의 원리로 확장함으로써 체계성을 띠게 된 것이다. 이는 한글이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도 뛰어난 확장성을 보이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활용하여 그만큼 문자 수를 줄였으니 경제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대 언어학보다 앞선 과학적 원리로 창제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한글을 인류 지혜의 최고 산물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 모아쓰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끌어쓰기를 하는 다른 문자들보다 가독성에서도 뛰어나며, 다양한 글꼴로 변용할 수 있어 예술적이다. 한글은 창제 후 불교, 유학의 경서 언해에 활용되었고, 개화기에는 성경 번역에도 쓰여 우리의 정신문화를 한층 높였다.

한글날의 유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은 1446년이지만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1926년부터이다. 이때 11월 4일에 '식도원'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므로 9월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29일, 양력으로 11월 4일에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다. 이날을 처음에는 '기기날'로 불렸는데 뒤에 차차 '한글날'로 부르게 되면서 '한글날'로 굳어졌다. 음력에 맞춰 기념함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와 양력으로 환산하여 1930년대에는 10월 28일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0년에 발견되면서 한글날은 다시 바뀌었다. 해례본에 수록된 정인지 鄭麟趾의 글에 '9월 상한 上漸'이라고 나오기 때문이다. 9월 상한의 끝 날, 즉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니 10월 9일이 되어 1945년부터 이날에 기념식을 거행하기 시작하였다. 한글날은 조선어학회 차원에서 기념해 오다가 광복 이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91년부터는 휴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글날'을 공휴 국경일에서 제외해 기념일로 변경하였다. 2005년에 다시 국경일로 승격 지정하였는데 2012년 12월 공휴 국경일로 재지정하여 올해 첫 공휴 국경일로 기념하게 되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자리에 앉으실게요.”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서비스 경쟁 속에서 손님을 높여 대접하려는 점원과 점원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손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잘못된 높임 표현입니다. 어르신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 합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겠지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를 소개합니다.

함께 가꾼 우리 말글, 함께 누릴 밝은 세상

국립국어원은 공무원과 매체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국어 의식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국어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국어 바로 쓰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공공언어 개선 등의 국어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숫자로 보는 열악한 언어 환경

- 어려운 정책명 때문에 연간 114억 원 손실
- 오락 프로그램 1분에 1번 이상 저속한 표현
- 학교 폭력 중 56.2%가 욕설과 폭언

현재 우리 주변의 언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공공기관에서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 난해한 용어와 정책명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맘프러너’ 등 어려운 정책명 때문에 1년에 11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봉입’ 등 어려운 용어를 개선하면 연간 1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방송에서는 막말과 품격 낮은 표현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1분에 1번 이상 저속한 표현을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학교 폭력 중 56.2%가 욕설과 폭언으로 조사될 만큼 청소년 또래 집단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일상화되어 인성 및 친구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머니티 공간’이 뭐예요?

4: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우리말 사랑 동아리 20개가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누리집 areumkorean.or.kr을 통해 이들의 활동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말 사랑행동본부’는 ‘Fill 청렴! Feel 양심! 必 창조 도시’와 같이 공문서, 정책명 등에 쓰인 잘못된 언어 표현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3040문학방’은 한글 없이 로마자로만 쓰인 ‘SEOUL MARINA Club & Yacht’ 등의 간판 사진을 찍어 누리집에 올렸으며, ‘사하구청 우리말살이’는 ‘2014년도 어머니티 공간 재생 사업 대상지 발굴 추천’과 같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외국어를 남용하는 공문서 사례를 보고하였다.

송현여고 학생들로 구성된 ‘우리말 가꾸기반’은 교내 회장실에 바른 우리말 쓰기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한 사진 자료를 올려놓았고, ‘라온누리’는 과자나 음료수 제품에 쓰인 외래어 실태를 조사하고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글글’은 고등학생의 우리말 사용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문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들어 보셨나요?

서비스 경쟁 속에서 손님을 높이려는 점원과 점원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손님으로 인해 문법에 어긋난 높임 표현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다. 사물을 높이는 ‘-시-’와 부적절한 호응인 ‘-실게요’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의 바른 높임법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물이 동격이 되는 잘못된 언어 표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화 동영상 두 편을 제작하였다. 이 동영상은 누리 소통망 SNS, 방송사, 각급 학교, 국어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www.korean.go.kr 알림 마당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당선된 표어는 다음과 같다.

으뜸상

- 함께 가꾼 우리 말글, 함께 누릴 밝은 세상

버금상

- 바른 우리말로 얘기꽃, 고운 우리말로 웃음꽃
- 아낄수록 아름다운 우리말, 가꿀수록 빛이 나는 우리글

딸림상

- 쉽고 바른 말 배려의 시작, 곱고 참된 말 존중의 완성
- 세상을 맑게 하는 고운 말, 미래를 밝게 하는 바른말
-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하루 종일 싱글벙글



아낄수록
아름다운 우리말,
가꿀수록
빛이 나는 우리글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에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에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바른 말을 사용하여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고, 언론에서는 품격 있는 방송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건강한 언어 환경을 실현하며, 일반 국민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습관을 조성하여 언어문화의 품격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현장 속의 한국어 전문가

'사랑해'라는 말 대신 원손 주먹을 세워 그 위에 오른손을 쓰다듬듯 돌리는 사람들. 늦은 오후, 지쳐 보이는 선생님께 반말로 "괜찮아? 왜 그래?"라고 다정하게 묻는 학생들. 이처럼 조금은 특별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님과 시화초등학교 다문화 특별 학급 햇살반 담임 김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한국어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농인의 모어, 수화

사단 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소리 없이도, 오직 손짓과 몸짓만으로도 고유한 언어가 될 수 있다. 농인의 언어 '수화' 가그러하다. 수화는 독립된 체계를 가진 별도의 언어이며, 농인은 음성 언어가 아닌 시각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과 같은 셈이다.

한국 수화는 한국어와 차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수화는 한국어를 그대로 손짓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문법과 체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언어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수화는 별개죠. 음성 언어인 한국어에서는 의미 요소들이 음성을 통해 전달되지만, 시각 언어인 수화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시각화되어 공간에 표현됩니다. 또 '산에 오른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 '산'이라는 명사 다음에 '오른다'는 동사를 붙이는 한국어와 달리 수화에서는 '산'과 '오르다'라는 표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수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통할 수 있는 언어인가요?

수화는 나라마다 고유한 정서에 맞는 표현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그 나라 농인을 만났는데, 서로 사용하는 수화가 달라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가벼운 의사소통은 일반적인 몸짓 언어를 통해 가능했는데, 농인들은 청인보다 사물의 특징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여 유리할 뿐입니다.



서울말과 지역 방언이 구분되는 것처럼, 수화도 서울 수화와 지역별 수화가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입니까?

저는 전북 익산 출신입니다. 서울에 올라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서 수화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러지 말라고 창피해했어요. 웃음 전북에서는 검지를 아랫도리에 대고 그대로 소변의 물줄기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엄지, 검지, 중지를 펴서 지문자 'ㅈ'을 만들어 흔들더라고요.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우리나라 수화의 언어적 지위를 확보하고 계승하기 위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아방송을 통해 한국 수화를 근간으로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각종 수화 관련 서적을 편찬하고 음성 언어에서 쓰이는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를 수화로 만들어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수화에 대한 청인들의 인식 개선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되다

시화초등학교 다문화 특별 학급 담임
김미 교사

내가 담임하고 있는 햇살반 다문화 특별 학급에는 '요'를 아무리 가르쳐도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에게 반말로 이야기하는 아이, 대부분을 과거 시제로 말하는 아이, 말을 하기 위해 몇 개 단어를 겨우겨우 말하는 아이 등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 그래도 나와 아이들은 척하면 척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렵게 내뱉은 낱말 몇 개만으로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척척 알아듣는다.

햇살반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일반 학급과 특별 학급을 오가며 한국어 학습과 또래 관계 형성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이러한 디딤돌 과정을 일정 기간 거친 후 일반 학급으로 돌아가 여느 또래 친구들처럼 생활하게 된다.

내가 특별 학급 담임 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으레 내가 외국어를 잘하는지 묻고, 한국어를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을 거라고 짐작한다. 물론 아이들이 옆에 와서 재잘대는 일반 학급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고,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더 많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대신 작은 것, 아주 사소한 단어, 말 한마디에도 감동과 보람을 느끼는 소중한 태도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다. 늦은 오후, 내가 의자에 축 늘어져 있을 때, 중국에서 온 중한이가 건넨 "괜찮아? 왜 그래?"라는 말, 6개월 전 중국에서 들어와 등교한 첫날 새하얗게 질려 '엄마……. 전화…….'만 반복하던 서녕이가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를 했다는 소식. 이런 일들이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4년째 이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는 이유이다.

4년 전 이 학급의 담임을 처음 맡았을 때에는 우리 아이

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가 없어서 수업 준비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효율은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올 3월부터 표준 교육 과정과 교재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졌다. 아이들에게 저마다 표지에는 '햇살반 ○○○'이라고 비뚤비뚤 쓰인, 자신만의 알록달록한 한국어 교과서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낮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중도 입국 학생들이 한국어 때문에 학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평범한 우리 이웃으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로 전하는 사랑, 한국어의 연인들

사랑에 이유가 있나요?

공휴일로 거듭난 567돌 한글날을 맞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글의 모양을 아름답게 그려 내는 노은유 님, 우리말이 성급하게 변해 가는 것이 안타까운 김병익 님, 우리말로 소통하며 우리나라에 살고 싶은 다니엘 튜더 님. 이들의 우리 말글 사랑법을 공유합니다.



숙명적으로 만난 은유의 세계

'노은유'라는 이름의 '은유'는 은유隱喻가 아니라 은유恩裕이지만, 그녀의 메일 주소에는 'metaphor메타포, 은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은유라는 이름이 직업이랑 맞는 게 참 신기해요." 기호, 언어, 디자인이 온통 은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각디자인과에 입학한 노은유는 안상수 교수의 타이포그래피 typography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건가?" 했다고 한다. "어떤 문제를 던져 주잖아요. 제약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풀어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요." 라며 미소 짓는다.

그녀는 간판이나 책을 보면 글자가 아닌 글꼴이, 크기가, 글자의 간격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다. 어릴 때 동네 서당을 다니면서 한지를 배운 일화가 재미있다. 훈장은 매번 한 글자를 백 번쯤 쓰도록 숙제를 내 주고, 그중 모양이 이상한 글자에 표시를 했다. "억울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마음 심心'인데. 벌바닥을 맞으면서 울었어요." 이런 그녀의 취미는 조선 시대의 글꼴을 보는 것이다. "옛날 서체들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찾는 자에게 다 길이 있죠." 이렇게 말하며 살피 웃는 그녀, 정말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쌀의 품종 같은 글꼴 디자인

"글꼴 회사가 20개 정도니까 디자이너가 모두 100명쯤 되지 않을까요? 참 역설적인 게 글꼴에 대한 수요는 엄청 나게 많죠. 하지만 시장이 없어요. 글꼴은 사서 쓰지는 않아요."하면서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그렇지만 기업 서체 개발을 의뢰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조계종 같은 광고주도 있다. 조계종은 최초의 한글 불경인 석보상절¹⁴⁴⁹을 바탕으로 만든 '석보체' 글꼴을 10월 9일 한글날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글꼴 디자이너 노은유를 만나다

글꼴도 사람이
그려 낸 겁니다

"그러니까 쌀의 품종 같은 거죠." 글꼴 디자인이 무엇인지 정의해 달라고 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가 수없이 많으니 쌀의 품종도 그만큼 많을 것이다. 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요리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 글꼴 디자인이라고 했다. 밥이나 죽을 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자니 그녀의 비유가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이 제가 만든 글꼴을 읽고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는 거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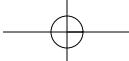
글 한시유 | 사진 김병관

-
노은유 | 1983년 대구 출생. 대학과 대학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 일본어 음성 표기를 위한 '소리체'와 명조체의 원형을 되살린 '로명체'를 만들었고, 기업 서체인 '아리따' 아모레퍼시픽과 '석보체' 조계종 개발에 참여했다. 현재 안그라픽스 타이포그래피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있다.



최 후 판 압 침 경 과
의

로명체 _ 가로 줄기가 가늘고 세로 줄기가 굵은 명조 계열의 글꼴



한글아놀자

문학 평론가 김병익을 만나다 조용한 걸음으로, 우리말을 일구다



맑고 단단한 문체로 한국어를 가꾸다

김병익은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다시 글을 읽는 사람이다. 이 일을 50년 넘게 직업적으로 해 왔다.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계간지 『문학과지성』 현재의 『문학과사회』과 출판사 「문학과지성사」를 만든 사람이고, 번역가이기도 하고 문학 교수였으며 초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다. 글에 대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문적인 일을 한 셈이다. 그는 무척 쉬운데도 가벼운 느낌을 주지 않는 맑고 단단한 문체로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꿔 왔다.

“우리 세대는 이어령 선생의 ‘선언 문체’와 장용학 선생의 ‘실존 문체’가 같이 있는 세대죠. 나도 그랬고, 김현 초기 문체가 이어령 문체예요.” 김현은 함께 문학과지성사를 일군, 이른바 ‘문지 4케이’ 김병익, 김현, 김치수, 김주연’의 일원인 문학 평론가다. 김병익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문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글을 참 잘 써요.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그런데 참 어려워요.

인간적인 체취가 덜 느껴진달까요.”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멘붕’ 같은 말이 그렇죠.” 그는 우리말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언어라는 게 생활과 함께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너무 아름답지 않게 변해 가는 게 유감스럽죠.” 산업화와 정보 통신 기술, 그로부터 파생한 기호와 약어들의 영향이 클 것이다 추측했다. 또 한국어 문장마저도 영어식 어법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그렇게 빈번히 쓰이지 않거든요. ‘보인다’가 있는데 ‘보여진다’고 쓴다든가, ‘된다’ 대신 ‘되어진다’고 쓴다든가 하는…….”

글을 향한 조용한 걸음으로

책의 여백에 적는 글을 ‘마지널리아 marginaria’라 부른다는 것을 그의 글을 읽고 알았다. 이 ‘마지널리아’의 결실인 새 책이 곧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자 그는 쑥스러워했다. 책의 제목은 『조용한 걸음으로』이다. 마종기 시인이 지어 줬다는 이 제목에서 ‘으로’라는 조사가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주인과 닮은 그 걸음이 독자들까지 어딘가로 계속 옮겨 놓을 테니. ●

글 한시유 | 사진 김병관

김병익 1938년 상주 출생.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한국기자협회장, 『문학과지성』 창간, 문학과지성사 창사. 인하대 국문과 조빙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문학과지성사 상임 고문으로 있다. 저서로는 『상황과 상상력』, 『열림과 일금』, 『이해와 공감』 등의 비평집과 『한국문단사』, 『지식인 뜻의 고로움』, 『페루에는 페루 사람들이 산다』 등의 산문집, 그리고 『현대 프랑스 지성사』, 『막다른 길』 등의 역서가 있다. 대한민국문학상, 대한민국문화상, 팔봉비평상, 대산문학상 등 수상.



언론인 다니엘 튜더를 만나다 한국 사람이 영어 못하는 게 왜 미안해요?

한국의 과거보다는 미래에, 정치보다는 일상에 관심을 두다

다니엘 튜더, 아주 유명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유명해진 그는 소위 ‘한국통’이라 불린다. 2010년부터 이코노미스트지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다 최근에 그만두었다. 가수 신중현과 싸이, 정치인 박원순, 축구 선수 흥명보, 우주 비행사 이소연, 시인 고은 등을 만났고 그것을 글로 썼다. 이 글들은 7월에 번역되어 출간된 그의 첫 책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에 수록돼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면서도 때로 유머 섞인 냉소를 보내기도 하는 그가 흥미로웠다. 그는 한국의 과거보다는 미래에, 정치보다는 일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고, 결론을 내리고 예측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영락없이 기자처럼 보였다. 이것이 그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다.

우리의 인터뷰는 영어를 못하는 질문자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종종 소통의 혼란을 겪었다. 영어를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그는 뜻밖에도 이렇게 되물었다. “한국에서는 왜 모든 사람이 영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낭비예요.” ‘힐링’과 ‘멘붕’ 따위의 말들에 질렸다는 그는 영어 지상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인다. 흔한 ‘우아한 영미권 언론인’이 아니었다.

명령받지 않은 삶을 꿈꾸다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변화가 많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자극을 얻을 수 있고, 심심할 수가 없어요.” 그는 치열한 경쟁,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 등의 사회적 문제는 개인주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질문이 제일 싫다고 한다. 『박하사탕』이나 『파이란』 같은 한국 영화를 좋아하고, 신중현의 『미인』과 장윤정의 『어머나』를 분위기에 따라 골라 부를 줄 알며, ‘힐링’, ‘지못미’ 따위의 말에 질려하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은 모욕이자 폭력이었 것이다. ‘명령받지 않은 삶’을 꿈꿔 온 그는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는 여유로운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남산, 인왕산, 세운상가, 천도교 터를 걷기를 좋아하고 낙산공원 밑과 한성대 부근의 동네를 즐겨 찾는다. ●

글 한시유 | 사진 김병관

다니엘 튜더 Daniel Tudor 1982년 영국 맨체스터 출생. 대학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했고 2002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서 영어 강사와 증권 거래인 등으로 일했다. 2009년 MBA를 취득한 후 스위스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코노미스트지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다. 저서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가 있다.



우리말 편지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우리말 편지

세계로 흐르는 한글, 한국어

한글은 더 이상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글로 적힌 노랫말을 따라 부르며, 한글로 된 시를 낭송하고, 한글의 모양을 따라 춤을 추면서 한국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등 공신 한글, 국립국어원의 국외통신원이 전해 온 세계 속 한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캐나다

춤으로 배우는 한글, 한글춤 같이 추실래요?



캐나다의 '한글춤연구소'에는 춤의 형식을 빌려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춤'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체 언어로 한글 자모를 만들며 한글과 한국 문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글춤'의 가치를 배워봅니다.

2012년 11월 17일, 캐나다 퀘벡 지역 한글협회의 초청으로 '한글춤연구소'의 이정화 소장이 몬트리올 한인학교를 방문했다. 이정화 소장은 현대 무용 전공자로서 핀란드 등 10여 나라에서 '한글춤'을 공연하고 가르쳐 왔다. '한글춤'은 춤의 형식을 빌려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이정화 소장이 직접 개발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글 자모를 신체 언어로 구성한 것인데, 이로써 한글과 한국 문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정화 소장의 설명이다. 이날 몬트리올 한인학교의 학생들은 이정화 소장의 '한글춤' 공연이 끝난 후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직접 몸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화 소장은 몸소 다양한 춤 동작을 보여 주고 학생들에게도 따라 해 보기로 권하여 참여도를 높였다. 어린이반뿐 아니라 성인반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각자 한글 자모를 만들어 보거나 함께 단어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 자모의 정적 움직임', '한글 자모의 동적 움직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어 몸으로 표현하는 한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춤'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로 나눠 볼 수 있다. 문화적 가치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정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 한국의 부채춤 동작을 비롯하여 한국의 전통 음악 등 예술적 영역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해 봄으로써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식과 사고를 갖게 해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적 가치로는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한글에 대해 자연스럽게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서 즐겁게 한글과 한국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시시각각 늘어나고 있는 요즘, 한글 교육에 춤을 접목시킨 것은 그 효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신선한 시도이다. 이처럼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

글 이정생 | 국립국어원 제6기 국외통신원



면 대부분 영어와 프랑스 주변국의 언어로 된 책이다. 한국어를 번역한 책은 2007년 108권^{7위}, 2008년 68권^{10위}, 2009년 76권^{10위}, 2010년 67권^{10위}, 2011년 54권^{12위}으로 비교적 상위권을 차지하며 꾸준히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프랑스에서 한국 문학이 지속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높은 수준의 문학성을 갖춘 작가들, 그 느낌과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힘쓴 번역가들, 한국 문학의 보급과 번역을 위해 애쓴 기관 모두의 노력이 없었다면 프랑스에서 한국 문학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물론 한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학 관련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천운영, 김언수, 문정희 작가를 초대했다. 지난 3월 22일에는 시집 <찬밥을 먹던 사람>의 출간으로 주목을 받은 문정희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시인

특유의 시적 에너지와 삶에 대한 통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 세계를 소개하였다. 5월 6일에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 김언수의 <캐비닛>의 프랑스 출간 기념으로 열린 한국 문학의 밤 행사에서 두 작가는 국제결혼과 관료주의를 주제로 하여 기존 문학과 다른 시선으로 한국 현대 사회의 모습을 프랑스 독자에게 소개하였다. 또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으로 매년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김언수 작가의 <캐비닛>을 대상으로 하였다.

오늘같이 별 좋은 날에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얼마 전 구입한 프랑스어판 <캐비닛>을 읽어야겠다. 우수한 한국 문학이 프랑스 구석구석으로 퍼져, 프랑스인 누구하고도 한

국의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예찬하는 날을 꿈꿔 본다. ●

글 지영호 | 국립국어원 제7기 국외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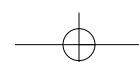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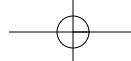
프랑스에 퍼져 나가는 한국 문학

프랑스에서 한국 문학은 더 이상 변방의 낯선 세계가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프랑스어로 멋지게 바꾸어 낸 번역가, 그리고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발로 뛰며 일구어 가는 프랑스 속 한국 문학의 현주소를 들여다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른바 한류로 불리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프랑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프랑스에 먼저 발을 내디딘 것은 한국 문학이었다. 1990년대 초반 악트 쉬드 출판사를 통해 이문열, 이청준의 작품이 프랑스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학은 본격적으로 프랑스에 진출하기 시작한다. 특히 1995년에 열린 문학 축제 행사 '아름다운 외국인들 Les Belles Étrangères'에 한국이 주宾국으로 참석하면서 한국 문학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프랑스에서 번역되는 책은 2위를 차지한 일본어를 제외하





한글아놀자

중국

중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 가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내에 불고 있는 한국어 바람은 2009년 베이징대학교 한국어학과 신설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시작된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중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 기관은 '동방언어전문학교'이다. 1942년 중화민국 교육부가 동방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번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방언어전문학교'를 설립하였고, 1945년에 이 학교에 조선어 전공을 증설함으로써 중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 출범하게 된다. 조선어 전공은 1949년에 '베이징대학교 동방언어학과'의 하위 전공 분야로 편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베이징대학교에 '조선언어문화 전공'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다. 초기에 조선언어문화를 전공한 졸업생들은 주로 중국 외교부에 배치되어 중국과 남북한 간의 외교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베이징대학교 조선언어문화 전공 과정에서는 4년마다 학생을 모집해 왔는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는 해마다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업 과목도 대폭 늘려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한 26개 학

부 과목과 28개 대학원 과목이 개설되었고, 2006년에는 박사 과정까지 수료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그 규모가 계속 커지는 추세이다.

그리고 2009년 봄, 드디어 베이징대학교 동아시아어과 산하의 12개 단위 전공 중 하나였던 조선언어문화 전공은 '한국어학과'로 독립하여 승격하게 된다. 이는 아시아 지역 언어로는 일본어학과에 이어 두 번째로, 그만큼 중국 내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최근에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한류의 확산에 힘입어 중국 내 한국어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글 백해파 | 국립국어원 제8기 국외통신원



독일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으로 이어 온 한국어

독일 교민 사회에서 한국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1960년대에 독일로 건너온 광부와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독일의 각 지역에 한글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독일은 유럽에서 한글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독 한글학교는 총 37개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자랑하는 곳은 바로 프랑크푸르트 한글학교이다. 2000년대 들어 많은 한국 기업이 프랑크푸르트에 진출하면서 현재 이 지역은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유일하게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한글학교는 학생 수가 약 800명에 이르며 독일 최대 규모이다. 이곳은 일시 거주자를 위한 '귀국반'과 장기 거주자를 위한 '교포반'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한

국의 국어 교과서를 주 교재로 삼아 토요일마다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아이들과 부모 중 한 명만이 한국인인 아이들 간의 한국어 실력이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 '한-독 가정반'과 '한-한 가정반'으로 나누어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 밖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주말에도 학교를 가야 하는 교포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한글학교에서는 태권도, 서예, 시물놀이와 같은 다양한 한국 문화를 함께 가르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배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실력을 뽐내는 학예회도 연다. 마인츠 한글학교의 경우, 매년 9월 마인츠 시가 주최하는 '다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 주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한글학교에서는 '청소년 한글 백일장'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

국어 교육을 위한 재독 교민들의 활동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부활절 기간에는 재독 한글학교 교장 협의회 주최로 '청소년 우리말/문화 집중 캠프'가 열리고, 3월 첫째 토요일에는 재독 한인협회 주최로 '재독 청소년 3·1절 웅변대회'가 열린다.

재독 교민 1세대의 한국어 교육은 헌신적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독일 축구보다 한국 축구를 더 열렬히 응원하는 '한국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세대는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만큼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글 학교의 존재는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겹게 버텨온 재독 한글학교가 교민 사회 안에서 언제나 생동감 넘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응원이 있길 바란다.

글 홍혜정 | 국립국어원 제8기 국외통신원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은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와 신나는 한국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우리말과 우리글의 이모저모를 구체적인 수치와 도표로 알아봅니다.

세계 속의 한국어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수는 약 79,056,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에 7,0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중 한국어는 사용자 수로 볼 때 세계 13위권에 드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비슷한 순위입니다.

- 대한민국 인구수: 47,990,761명 출처_ 통계청 '2010년 인구 총조사', 2010
- 북한 인구수: 24,052,000명 출처_ 에스놀로그 누리집, 2013
- 재외 동포 수: 7,012,492명 출처_ 외교부 '2013 재외 동포 현황', 2013

* 세계 한국어 사용자 수

79,056,000 여 명

한국어의 경제적 위상 10위

한국어는 G20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를 대상으로 영어 제외 실시한 무역 교류에 적합한 언어 조사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내 총생산GDP 대비 무역량과 교육 기간 부문에서 조사 대상 언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출처 _ 블룸버그 통신 누리집, 2011

*비즈니스 언어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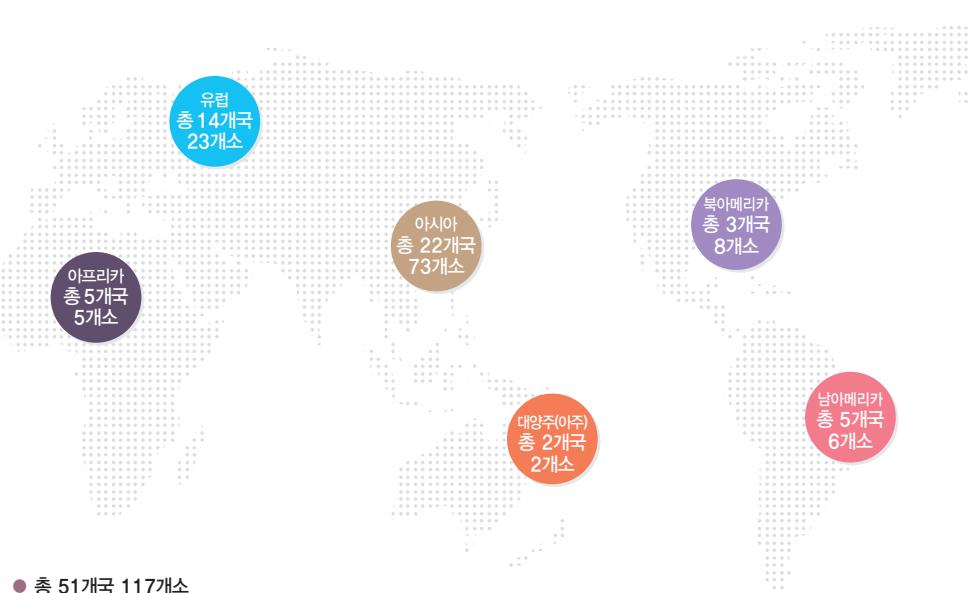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

한국어를 교육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세종학당'인데, 현재 51개국에 1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 동포 자녀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해 설치한 한글학교는 무려 1,934개나 있다고 합니다.

- 출처_ 세종학당 누리집, 2013
- 재외동포재단 누리집, 2013

*세계 곳곳의 세종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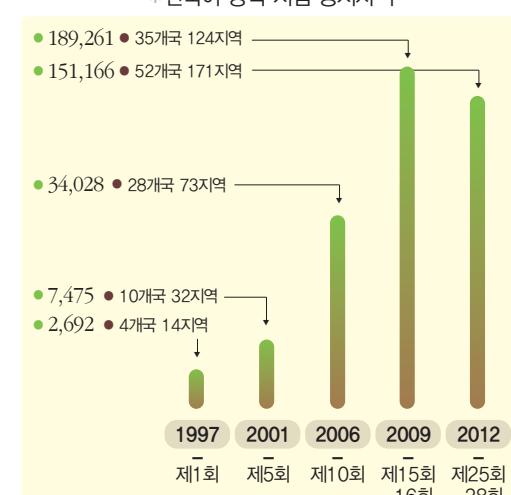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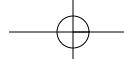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응시자 수 1,000,000 명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와 외국인이 유학 및 취업을 위해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인데, 현재까지 누적 응시자 수가 무려 1,015,013명에 달합니다. 처음 시행된 1997년의 2,692명에 비해 2012년에는 56배 증가한 151,166명으로 늘어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_ 교육부 보도 자료 '한국어 능력 시험 누적 지원자 100만 명 돌파'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





한글아놀자
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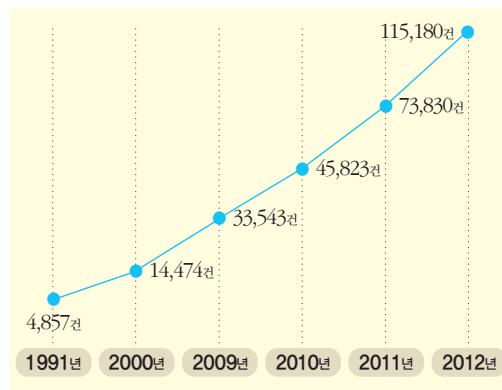
우리 국민의 말글살이를 살펴봅시다

우리 국민의 국어에 대한 관심도

국립국어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 가나다전화 1599-9979
- 온라인 가나다 www.korean.go.kr/09_new/minwon/qna_list.jsp
- 트위터@urimal365

1991년 4,857건으로 시작한 우리말에 대한 상담은 2012년에는 무려 23배나 증가한 115,180건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문해율

우리 국민의 문해율은 98.3%로 선진국 평균인 99.6%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20대~40대의 문해율은 100%에 이릅니다. 과거 문맹 퇴치 운동과 1960년대 이후 의무 교육의 확산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출처 _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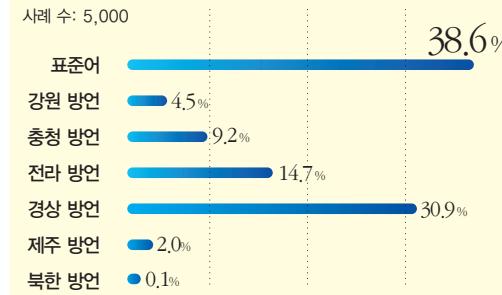
* 국민의 문해율

98.3%

지역어의 사용 비율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38.6%는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상 방언 30.9%, 전라 방언 14.7%, 충청 방언 9.2%, 강원 방언 4.5%, 제주 방언 2.0%, 북한 방언 0.1%의 순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_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2010



한글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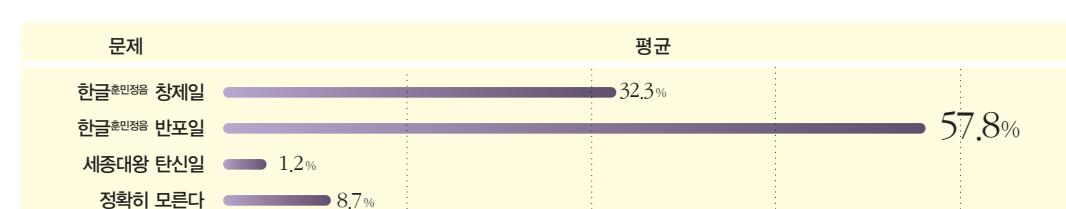
한글날 제정의 기준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반포된 '1446년 음력 9월 10일(정통 11년 9월 상한)'을 양력으로 바꾼 10월 9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의 57.8%만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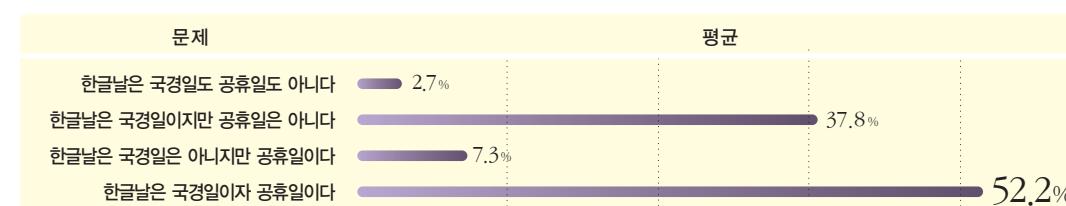
출처 _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 '알쏭달쏭 한글, 한글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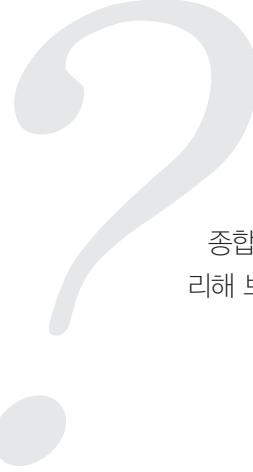


한글날 공휴일 지정

한글날은 1991년에 경제적 이유로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05년에 국경일로 재지정되었고 2013년부터는 다시 공휴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문 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무려 47.8%나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_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 '알쏭달쏭 한글, 한글날?', 2013





자주 혼동되는 한글 맞춤법 이야기

[며칠]이라는 말은 ‘며칠’과 ‘몇일’ 중 어떤 표기가 옳을까? ‘베풀다’의 명사형은 ‘베풀’일까? ‘베품’일까? 평소에 헷갈려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사전을 찾아본 경험들 있으시죠? 이렇게 알쏭달쏭한 한글 맞춤법에 대한 궁금증은 국립국어원 국어생활 종합상담실 1599-9979과 트위터@urimal365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혼동하고 또 어려워하는 표기 몇 가지를 모아 이곳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어디서 {쇄요 / 쇠요}?

‘쇠요’와 ‘쇄요’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표기인가요?
‘쇄요’가 맞습니다. ‘쇠다’에 ‘~어요’가 결합한 ‘쇠어요’가 줄어들면 ‘쇄요’가 됩니다. 같은 원리로 ‘되어요’, ‘되어요’도 줄어들면 ‘돼요, 배요’가 됩니다.

{며칠 / 몇일}을 쉬었더니

오늘이 {며칠 / 몇일}인지 모르겠네
'몇'과 '일'이 합쳐진 말이므로 '몇일'이 맞지 않나요?
'며칠'이 맞습니다. '몇 월'은 [며월]로, '몇 인분'은 [며인분]으로 발음되듯이, '몇일'이 맞다면 [며일]로 소리가 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발음은 [며칠]입니다. '몇'과 '일'이 합쳐진 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며칠'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합니다.

“숙제 다 했나?”

“{아니요 / 아니오}.”

‘예’의 반대말은 ‘아니요’, ‘아니오’ 가운데 뭐가 맞나요?
‘아니요’가 맞습니다. 대답할 때 쓰는 ‘응–아니, 예/네–아니요’는 모두 감탄사입니다. ‘아니요’는 반말체인 ‘아니’에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요’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니오’는 “당신이 범인이오?”와 같은 질문에 “나는 범인이 아니오.”와 같은 형식으로 대답할 때 씁니다.

{널따란 / 넓다란} 마당이 있는 집

‘넓다’와 관련된 말이니까 ‘넓다란’이 맞지 않나요?
‘넓따란’이 맞습니다. ‘–띠랗다’나 ‘–찌하다’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을 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널따랗다[널따라타], 얕찌하다[얕찌카다]’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합니다. 반면에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날 때는 ‘굵다랗다[국따라타], 넓적하다[넙쩌카다], 굽직하다[국찌카다]’처럼 원형을 밝혀서 적어야 합니다.

{형만 한 / 형 만한} 아우 없다

‘형만 한’, ‘형 만한’ 가운데 어떻게 띄어 써야 하나요?
‘형만 한 아우 없다’가 맞습니다. 이때의 ‘만’은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하고 ‘하다’는 용언이므로 앞말과 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가 송아지만 하다’, ‘집채만 한 파도’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정답을 {맞히면 / 맞추면}

상품을 준대요

‘맞히다’랑 ‘맞추다’는 발음도 비슷해서 구분이 어려워요.
‘맞히면’이 맞습니다. 정답을 골라내거나 화살 따위를 과녁에 적중시킨다는 뜻일 때에는 ‘맞히다’를 써야 합니다.
‘맞추다’는 서로 떨어진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붙이거나 둘 이상을 나란히 서로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 시험이 끝나고 답을 맞춰 보았다. 비교
- 열 문제 모두 답을 맞히다니 놀라웠다. 적중
- 몇 개나 맞혔는지 모범 답안과 내 답안을 맞춰 보았다. 적중/비교

김치를 {담가 / 담궈} 먹는다

‘담가’와 ‘담궈’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표기인가요?
‘담가’가 맞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일을 가리키는 말은 ‘담그다’이므로 ‘담그고, 담근, 담가, 담갔다’와 같이 써야 합니다. 같은 원리로 ‘참그다’의 활용형도 ‘참그고, 참근, 참가, 참갔다’가 맞습니다.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 / 베품}

‘베풀’과 ‘베품’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표기인가요?
‘베풀’이 맞습니다. ‘베풀다, 만들다, 불다, 들다’처럼 어간 받침이 ‘ㄹ’인 용언에 ‘–ㅁ’이 붙으면 ‘ㄹ’ 받침을 써야 합니다. ‘설다’가 ‘설’이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 거북선을 *만듬 → 만들
- 바람이 *붐 → 불
- 예를 *듬 → 뜀

{예부터/옛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예부터’와 ‘옛부터’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표기인가요?
‘예부터’가 맞습니다. ‘부터’는 조사이므로 앞에 명사가 와야 하는데 ‘옛’은 관형사이고 ‘예’가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스럽다’가 맞고 ‘옛스럽다’는 들립니다. 접미사 ‘–스럽다’도 명사와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관형사 ‘옛’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뒤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 옛 기억, 옛 추억, 옛 친구
- 옛날, 옛사랑, 옛이야기, 옛일, 옛정

한글 주간 행사들, 문화로 꽂피우는 한글

한글문화 큰 진치 10월 7일 ~ 10월 13일

한글 주간에 ‘한글아 놀자’라는 주제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한글문화 큰 진치’가 열린다.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 행사와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 국제 학술 대회

10월 8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을 주제로 6개국의 언어 교육 전문가가 참석하는 국제 학술 대회가 열린다.

디지털 한글박물관 특별 기획전 10월 9일 ~

활자본 한글 고전 소설을 주제로 한 여덟 번째 디지털 한글박물관 특별 기획전인 ‘한글, 장터를 점령하다’를 국립국어원과 디지털 한글박물관 누리집 www.hangeulmuseum.org에서 볼 수 있다.

통합과 소통의 국어 정책 전국 학술 대회

10월 11일 오전 10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국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어문화단체연합회 소속 학회가 연합하여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국어 문화 시민 강좌

10월 22일 ~ 10월 25일 저녁 6시 30분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한국어,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국어 문화 시민 강좌가 열린다. 권영민 교수, 이상혁 교수, 고은 시인, 민현식 원장 등이 강연할 예정이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쉼표, 마침표」에서 보실 수 있으며 저작권 및 초상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